



최우수작

## 결국 나는 너다

KBS <개그콘서트> <감수성> 코너에서 이뤄지는 소통이 의미하는 것

이무제

### 감성이 고픈 시간

『예술에 있어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는 현대 추상미술의 선구자 칸딘스키의 저서이다. 그는 책에서 ‘정신의 삼각형’이라는 비유로 예술의 진화를 설명했다. 곧 “시대의 정신생활이 형성하는 삼각형이 있다. 그 저변(底邊)에는 광범위한 대중이 있고, 정점(頂點)에는 고독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예술가가 있다. 그런데 이 삼각형 전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앞으로, 위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오늘 예술가의 예감에 지나지 않던 것이 내일은 지식인의 관심사가 되고 모래는 대중의 취미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비록 백 년 전의 미술 이론서지만 그가 언급한 ‘정신의 삼각형’ 비유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 있게 다가온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가 일으킨 돌풍이 그 예다. 이 책은 국내 비소설 사상 최단 기간에 100만 부의 판매고를 올렸다. 그 배경에는 위로받기 원하는 독자들의 절실함이 투영되어 있다. 인생을 치열하게 고민하며 살아온 한 지식인의 인생철학을 들으며 대중은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다. 이러한 흐름에서 TV 프로그램의 소재들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한때 독설이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다. 시청자들은 앞뒤 계산하지 않고 마음대로 할 말 다 쏟아내는 주인공에게 환호를 보냈다. 하지만 이제는 지쳐버렸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를 느끼게 된 탓이다. 그리고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도 아님을 알게 되었다. 이제 사람들은 마음 곳곳에 난 생채기의 치유를 원하고 있다. 예민한 감성을 어루만져줄 안식처가 절실해졌다. 그때 한 코너가 만들어졌다. 5분 남짓한 시간 속에 이러한 문화에 대한 대중의 욕망을 적절하게 녹여낸 <개그콘서트>의 <감수성>이다.

### 일상이란 전장 위에 옮겨온 막사

코너는 오랑캐의 침략으로 감수성만이 남았다는 소식을 전하며 시작된다. 이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임을 암시한다. 전쟁 상황은 긴박함을 전제로 하기에 개그 소재로 흔히 쓰인다. 하지만 <감수성>은 이전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기보다 한 단계 진화시켰다. 예전 <변방의 북소리>가 슬랩스틱으로 웃음을 이끌어냈다면 이들은 내면의 여린 ‘감성’을 통해 웃음을 주고 있다. 오감만족을 꾀하는 것이다. 물론 몸을 이용한 개그도 포기하지 않았다. 기존에 개그 소재로 쓰였던 모든 것을 녹여내 변주시켰다.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이유다. 막사를 배경으로 선택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매우

적절했다. 이곳은 전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곳이다. 보고가 제일 먼저 올라 오고 부대의 중대 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만큼 급박하게 돌아간다. 위기의 상황에 사람들은 당황하기 쉽다. 그래서 평소보다 폭언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 적나라한 감정의 표출을 가장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만 한 곳이 없다.

장소만으로 스토리가 힘을 얻은 것은 아니다. 그들이 막사에서 보여주는 행동들 역시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상명하복 체계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 벌어질 수 있음직한 모습이다. 피라미드 형태의 조직 구조는 필연적으로 부하직원을 언짢게 하는 말이 권위를 등에 업고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것을 감내하고 참아낸다. 그것이 또한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이라는 가르침 때문이다. 조직과 권위 앞에서 울분을 내면화하는 사이 마음의 골은 깊어만 간다. <감수성>은 이러한 상황을 3인칭으로 전이시켜 보여준다. 관객이 차분하게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선택은 주제를 드러내는 데 매우 적합하다. 불편하지 않게 깨달음을 주기 때문이다. <감수성>에 출연하는 다양한 기수의 개그맨들은 우리의 대리인이 되어 우리가 당했던 일을 우리 중 누군가인 가해자에게 곱씹도록 만들어준다. 또한 현실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즉시적인 반박을 통해 보복을 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위로를 얻고 통쾌함을 느낀다. 비록 <감수성>의 장수들은 전쟁의 승리도 서로의 관계 회복도 이뤄내지 못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우리의 일상을 환기시켜준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실망하고 상처받은 시청자의 가슴을 잔잔히 위로하는 <감수성>의 매력이 여기에 있다.

## 관계의 역전, 권력의 반전

“반전이란 텍스트 전체를 별안간 다른 앵글에서 바라보게 하여 새롭게 통일된 형상을 드러내는 장치이다.” <식스 센스>를 만든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말이다. <감수성>의 흥미 요소도 여기서 기인한다. 반전을 이끌어내는 장치로 음악을 적극 이용한 부분이다. 오디오를 끄고 이 방송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재미가 반감된다. 명백하게 계급별로 다른 의상을 착용하고 각자 위치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직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귀를 열고 텍스트를 음미하면 분위기는 반전된다. 특히 음악을 매개로 이들의 관계가 역전될 때가 절정이다. 혀를 뽑고 3대를 멸하겠다는 엄명에 신하들은 감정이 상해 입을 삐죽 내민다. 방금까지 권위를 내세우던 전하는 친히 자리에서 내려와 잘못했다며 사과한다. 즐거운 상상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엄마가 만든 음식에 왕이 ‘이딴 것’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신하는 눈물을 글썽인다. 하지만 잠시 후 음악이 흘러나오면 기를 펴고 마음에 담아둔 말을 쏟아낸다. 주위에서도 왕에게 면박을 주며 약자의 편을 들어준다. 고개를 숙였던 부하가 순식간에 지도자를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을 대중들은 유쾌하게 소비한다. 이러한 권력의 반전에서 우리는 풍자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된다.

청나라 시대를 배경으로 정한 부분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것이 관계의 역전에 더욱 극적인 재미를 주기 때문이다. 북쪽의 오랑캐는 우리의 ‘신체발부 수지부모’의 정신과 정반대되는 변발을 하고 등장한다. 이러한 외모는 우리의 전통과 대척점에 선 문화다. 따라서 그는 극명한 적으로 자연스럽게 상정된다. 외부의 적이 명확해지면 내부의 결속은 단단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감수성>에서는 막말을 하면 바로 적군과 아군의 관계마저 비틀어

버리는 식으로 이를 역이용해 웃음을 준다. 결국 적도 이군도 없는 오직 마음 여린 사람들만 모인 곳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그만큼 긴장감도 높아진다. 누가 언제 어떻게 적으로 몰아세워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오랑캐에게 모욕적인 고문을 하는 장수를 향해 서로 입을 모아 “저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어?”라고 반문하는 것이 그 예다. 이처럼 <감수성>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지속적인 변화는 제어하기 어려워만 보였던 감성적 소구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흥미를 이어가는 중요한 요소다.

### 치욕스럽지 않은 치욕

내시는 왕의 가장 가까이에 있다. 두 손을 다소곳이 모으고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서 있다. 하지만 대화의 중심에는 끼지 못한다. 그런 그가 한순간 무대를 장악한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낼 때이다. 그가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으로 잔뜩 늘어놓는 뉘두리는 안타까움과 웃음을 동시에 자아낸다. 그렇령한 눈으로 신세한탄하는 모습에 장수들은 어찌할 줄 모른다. 그 웃음의 줄기는 분명 금기시되는 성적 담론임에도 이곳에서만큼은 쉽게 용인이 된다. ‘거세’라는 굴욕적 행위마저 희화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힘이 <감수성>의 저력이다. <감수성>은 그를 중간자로 설정하고 그의 성 정체성을 끊임없이 되묻는다. 이는 생물학적 성과 사회학적 성에 대한 의미 있는 고찰이다. 물론 그들이 즉시적인 답을 피함으로써 문제를 깊게 끌고 가진 않는다. 계속해서 내시의 아슬아슬한 정체성을 이용하는 점이 기발하다.

청나라 장수를 고문하는 과정에서 자행되는 성적 고문 역시 그 연장선에서 유쾌하게 읽힌다. 적나라하게 속살이 드러나면 오랑캐는 잔뜩 토라져 집에 가겠다고 아우성이다. 그렇게 빠치고 나서도 잘해주겠다는 말 한마디

에 금방 히죽 웃는다. 이 모습에 시청자는 아이의 이미지가 겹친다. 그 사이 선정성은 한결 가벼워진다. 청나라 군사 역시 적이 아닌 사람이며, 그렇기에 저런 치욕을 안겨서는 안 된다는 질책 속에 휴머니즘이 녹아 있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감수성>은 ‘거세’나 ‘노출’ 같은 선정적인 소재를 통해 우리가 갖고 있던 편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김준호가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국민을 나누려 하자 조용히 손을 들고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내시의 존재가 그렇다. 이를 통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이분법에 대해 비꼬고 있다. 부라부라 부하들이 ‘한때 있었던 자’로 새롭게 정의하는 모습을 통해 다양한 시각이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택한 선정성을 비껴가기 위한 묘책이다.

### 통념을 비웃다

<감수성>은 전쟁을 한 지 이미 10년이 지났다. 절체절명의 생사기로에서 감수왕은 책사에게 위기를 타파할 비책을 묻는다. 지략가의 첫 마디는 늘 그럴 듯하다. 고전을 인용해 거창하게 시작한다. 하지만 왕의 인내심은 그리 깊지 않다. 곧이어 분노가 폭발한다. 머리를 써야 하는 책사가 구타당하는 데만 머리를 쓰는 상황적 아이러니다. 혼쫓이 난 전문가는 자신감을 잃고 순식간에 어눌한 말투로 항변한다. 일방적인 권력 행사 앞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개진하지 못하는 사내 커뮤니케이션과 닮았다. 왕은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찬찬히 훑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음에도 뉘달만 하다 충성심 어린 부하를 잃고 만다. 그릇된 권위주의의 폐해를 보여준다. 지도자에게 포용력이 갖춰졌을 때 전문가가 비로소 제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객들의 허술함은 전문가의 존재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다. 오랑캐는 늘 믿는 구석이 있다며 기밀을 누설하지 않고 버틴다. 하지만 청나라 최고의 자객이라며 복면을 쓰고 나타나는 자객들은 하나같이 허세만 부리다 끝난다. 최고라는 수식어가 소문과 다른 빈껍데기에 불과한 경우가 많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한다. 자객들이 보여준 행동과 주변 상황에서 이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카메오로 등장한 ‘리키 김’이 화려한 무술을 선보인 후 정작 피아(彼我)를 구분하지 못해 같은 편을 공격한 것이 그 예다. 와이어를 달고 공중에서 등장한 ‘이수근’이 결국 무대로 내려오지 못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자기 분야에는 정통하지만 다른 분야에는 완전히 무지할지도 모른다는 비판이다. 이를 위해 <감수성>은 지속적인 감시와 확인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자객이 등장과 동시에 뒤로 돌기를 수차례 하다 결국 우물에 빠진 에피소드가 그렇다. 뒤이어 우물에서 ‘이수근’이 나오자 감수왕은 의심하며 다시 우물을 뒤져보라 명한다. 결국 우물에는 실제 뒤돌기를 한 다른 인물이 있었다. 이렇게 <감수성>은 전문가의 존재에 대해 의미심장한 접근을 시도한다.

‘약속’과 ‘죽음’이라는 절대가치에도 의문을 표하고 있다. 잡혀온 오랑캐들은 암묵적으로 자신들 사이에 서약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불지 않을 것이라 호언장담한다. 하지만 그들의 서약은 어김없이 눈앞에서 깨진다. 불이익 때문이다. 고초를 겪어가면서도 서약을 지키려 한 상대방은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화를 내지만 이미 엇질러진 물이다.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과 속으로 계산하는 실리가 현격히 차이가 나는 지금의 세태를 불편할 만큼 그대로 보여준다. 죽음에 대한 접근 방식도 그렇다. 서약은 그 본질과 상관없이 그저 일상 먹을거리 정도로 통용된다. 인질은 오히려 바이어처럼

<감수성> 장수들과 협상한다. 자신이 저야 할 죽음이라는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 앞에서도 말이다. 죽음은 가벼운 하나의 벌칙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세계관 앞에 대중의 통념은 유쾌하게 뒤집어진다. 언짢다며 집에 가겠다고 떼쓰는 오랑캐에게 사약 먹고 가라 달래는 감수왕과 장수들의 모습을 끝으로 이 코너는 마무리를 한다.

### 그대들 안에 스며 있는 우리

<감수성>은 유행어가 없다. 하지만 성공했다. 이 코너가 식상해지지 않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유행어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음악이 나오는 타이밍을 사람들이 저마다 상상하게 만들고 미묘하게 조율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했다. 시청자들을 조건화시킨 덕분이다. 대중은 예상과 다른 타이밍에 더욱 즐거워한다. 유행어를 버림으로써 얻는 이득은 이뿐만이 아니다. 유행어는 전체 대화가 딱 들어맞았을 때만 나올 수 있다. 그만큼 활동 반경이 좁다. 반면 <감수성>은 에피소드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어디에서나 통용된다. 그래서 주제의식의 울림 폭도 크다. 이는 끊임없는 관계의 역전 덕분이다. 예민한 장수와 병사, 포로들이 주고받는 대화에서 드러나는 반전과 권위의 붕괴가 묘미다. 이들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돌아보게 만든다.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그들의 행동이 별반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다. 여기에 우리 사회의 단면이 그대로 투영된다. 한번 상처를 주고 사과를 해도 돌아서면 똑같이 저지르게 되는 미숙한 소통 능력. 그것이 궁극적으로 <감수성>에서 보여주고자 한 풍자가 아닐까. 이 <감수성>이 궁극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고찰이다. 소통은 ‘내 생각을 따르라’고 반복해서 강요하는 게 아니다.



상대가 내 생각을 따를 수 있도록 환경, 즉 게임의 룰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다. 소통을 위해 룰을 바꾸는 일, 결코 거창한 게 아니다. 물론 답은 알아서 찾아야 한다. 그래서 풍자의 끝 맛이 달콤쌉시름하다. 내가 무너뜨리 고자 한 그 권위가 마지막 순간 나를 지켜줄 보루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정작 나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행동만을 기억할 뿐 내가 아픔을 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CBS 댄 래더(Daniel Irvin Rather)와의 대담에서 한 이야기에 더욱 가슴이 먹먹해진다. 그가 물었고 그녀가 대답했다. “당신은 기도할 때 무엇을 말합니까?” “저는 듣습니다.” 그렇다. 대화를 할 때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부정해도 결국 ‘나’는 ‘너’다.